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어린이집 적응 간의 구조분석

김종훈^{1*}, 김은아²

¹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학과, ²자이 숲 어린이집

A Structural Analysis on Mother's Empathy and Parenting Behavior, Infant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Adaptation to Daycare Center

Jong-Hoon Kim^{1*}, Eun-Ah Kim²

¹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²X i Forest Day Care Center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어린이집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변인들 간의 경로를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 310명과 그들의 어머니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를 사용하여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고,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AMOS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하여 변인 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매개하여 어린이집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아의 개인적인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향후 영아의 정신건강과 사회성 증진을 위해 영아의 정서발달과 지도, 효과적인 부모양육법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실제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mother's empathy and parenting behavior, infant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adaptation to day-care cente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10 infants and mothers in Gyeongn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verify the structures and paths among the variables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it was confirmed that the mother's empathy ability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the infant's adaptation to the day-care center, but it had an indirect effect by mediating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the infant'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This means that the infant's individual ability is not only necessary for the infant's adaptation to the day-care center, but also that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empathy ability at home are important. These results can provide the basic data for educating parents to help infants adjust to and stabilize with a day-care center.

Keywords : Infant, Empathy, Parenting Behavior, Social-Emotional Development, Daycare Center's Adaptation

이 논문은 2020~2021년도 경상국립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ong-hoon Kim(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child@gnu.ac.kr

Received July 19,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Revised August 2,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체 영유아 중 만1세 74.4%, 만2세 89.1%, 만3세 90.2%, 만4세 90.9%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1], 최근 영아의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시간이 증가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영아 대부분이 어린이집 일과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갖게 되었으며, 어린이집은 영아의 적응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한 발달과제로 가지게 되었다[2].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가정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 최초로 타인인 교사,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생활이 계획된 어린이집 생활에 안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영아기의 적응 문제는 유아기 이후 학령기와 청소년기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적으로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3], 영아에게 성공적인 어린이집 적응은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 개인 변인으로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들 수 있다. 영아기 동안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영아는 점차 분화된 정서능력을 발달하게 되고, 안정 애착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타인을 이해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사회정서발달을 하게 된다[4].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영아가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고 그 문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5]. 이러한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일 것이다.

영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에 필요한 정서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내면화하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위기를 형성하므로, 영유아 자녀의 정서조절, 유연한 사고 및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 시킨다[6]. 또한 자녀의 정서적 고통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고 배려해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정서능력을 증진시키고, 대인관계에 보다 긍정적이고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7].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8].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기관적응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 즉, 일관성 있고, 수용적인 양육은 영아에게 기관에서 더 긍정적인 적응행동을 이끈다[9]. 어머니가 영아의 독립성을 조장 및 격려해 주고,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특히 사회적 적응능력이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10]. 이는 가정에서 독립심이 강한 영아로 자랄 경우 기관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가정환경 자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임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이해해 주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는 공감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공감능력이란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그의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공감능력은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 자녀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한 행동이나 태도와 관련되고, 이는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 및 애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11,12].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을 받은 영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안정되게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즉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자신의 양육행동은 물론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기관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어린이집 적응은 영아 개인의 사회정서발달과 1차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공감능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동안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사와 영아의 관계[14], 영아의 개인성향에 초점을 다룬 연구[15]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어머니의 개인 성향인 공감능력과 영아의 사회정서 및 어린이집 적응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행동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어린이집 적응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능력발달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서의 영아의 개인적 능력과 어머니의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영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부모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연구문제.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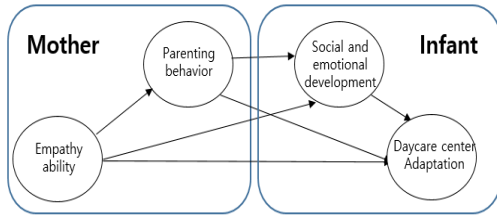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15개 어린이집의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이며, 설문조사는 2021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포하여 320부를 수거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31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아의 연령은 만1세 121명(39.0%), 만2세는 189명(61.0%), 성별은 남아 162명(52.3%), 여아 148명(47.7%)이다. 출생순위별로는 첫째 187명(60.3%), 둘째 102명(32.9%), 셋째 21명(6.8%)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만29세 이하 22명(7.1%), 만30-34세 95명(30.6%), 만35-39세 142명(45.8%), 만40세 이상은 51명(16.5%)이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는 129명(41.6%), 파트타임은 43명(13.9%), 풀타임은 138명(44.5%)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Mehrabin과 Epstein[16]의 정서공감척도, Davis[17]의 IRI 검사, Bryant[18]의 정서공감척도를 Park[19]이 번안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요인으로는 인지 공감이 15문항, 정서 공감은 15문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865로 나타났다.

2.2.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Crase, Clark & Pease[20]가

개발한 IWOA 부모양육행동 척도(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Mother Form: IPBI)를 Hong[21]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도구를 사용하다. 본 도구의 하위요인으로는 합리적 지도 8문항, 한계설정 5문항, 애정성 8문항, 반응성 5문항 등 총 4개 영역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912로 나타났다.

2.2.3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측정은 Kim[22]이 개발한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평정척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요인은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 자아개념, 자기 조절, 사회적 관계로 총 4개 영역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954로 나타났다.

2.2.4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Jewsuwan, Luster, Kostelnik[23]가 개발한 유치원 적응 평가(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Oh[24]가 만 36개월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으로 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또래 간 적응, 자아상태, 하루 일과에 대한 적응, 일반적 적응의 6개 하위영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900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 AMO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모형부합도평가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와 절대적 적합 지수인 RMSEA, SRMR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상관관계 분석

전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61~.753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이 아니었으며, 판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을 확보하였다.

3.2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측정모형 타당성 검증과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요인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이 고려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 SRMR를 통해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였다[25]. 본 연구의 확인적요인분석 모형 부합도의 지수는 $\chi^2=278.135(df=92, p<.001.)$, TLI=.906, CFI=.928, RMSEA=.081, SRMR=.067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과 관측변인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표준화 요인부하량(Standized Factor Loading)이 .35~.91(C.R.>1.965)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변인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설정한 연구모형의 부합도 및 경로의 모수치를 추정하여 확인하였다.

3.3 연구모형분석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행동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어린이집 적응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 278.135, (df=92, p=.000)$, TLI=.906, CFI=.928, RMSEA=.078, SRMR=.084으로 나타나 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beta=.68,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beta=.27, p<.05$)에,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어린이집 적응($\beta =1.02, p<.001$)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Mother	Empathy ability	1			
	Parenting behavior	.540***	1		
Infant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061	.129*	1	
	Daycare center adaptation	.082	.398***	.753***	1

***p < .001,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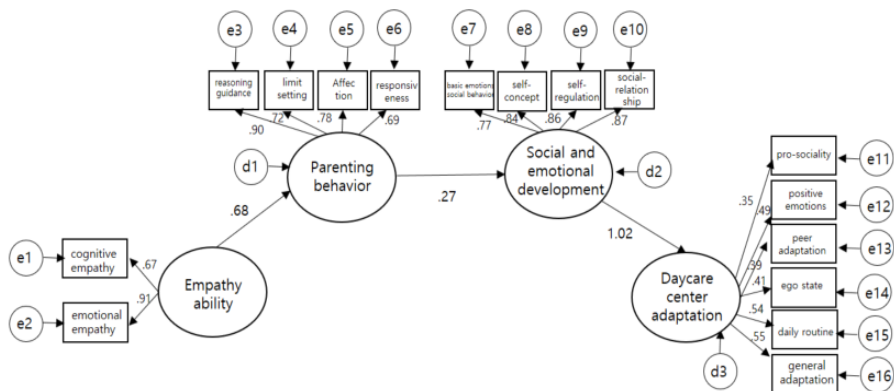


Fig. 2. Verification on the measurement model

Table 2.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Paths	Direct	Indirect	Total
Mother's Empathy ability → Mother's Parenting behavior	.686***	-	.686
Mother's Empathy ability →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137	.186*	.049
Mother's Empathy ability → Infant's Daycare center adaptation	.063	.043*	.106
Mother's Parenting behavior →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271*	-	.271
Mother's Parenting behavior → Infant's Daycare center adaptation	-.010	.279*	.268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 Infant's Daycare center adaptation	1.029***	-	1.029

***p < .001, *p < .05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의 간접매개 경로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2].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1세, 만2세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행동,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린이집 적응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각 변인들 간의 전반적인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행동,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린이집 적응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육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매개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일차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감정을 잘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에 있어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정적이고 합리적 행동을 보인다[26]. 이러한 어머니에게 양육을 경험하는 영아들은 자기 인식이나 자기조절,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행동 능력이 더 발달하고[10], 최종적으로

영아들이 타인과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 계획된 하루일과를 문제없이 소화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바탕으로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5]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어린이집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매개로 어린이집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한 어머니 변인과 영아 개인변인을 한꺼번에 다룸으로써,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어머니의 변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어머니의 개인성향이 영아를 양육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영아의 개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영아의 개인 역량이 영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예상하고 행동하는 사회정서능력 발달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영아기임을 고려하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부모의 공감능력이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아의 개인적인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향후 영아의 정신건강과 사회성 증진을 위해 영아의 정서 발달과 지도, 효과적인 부모양육법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실제적인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 지역의 어린이집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변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교사와 어머니의 설문지 평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관찰, 면접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하여 영아의 사회 관계망을 고려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ICCE. 201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tatistics. Seoul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
- [2] Nary, Shin., & Hyun Jeong, Yun. Development of a Teacher Rating Scale of Childcare Adaptation for Infants and Toddlers. Korean J Child Stud, Vol37, No6, 35-56, 2016
DOI: <http://dx.doi.org/10.5723/kjcs.2016.37.6.35>
- [3] Trevarthen, C. The function of emotions in early infant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 In New perspectives in early communicative development (pp. 48-81). Routledge, 2017.
DOI: <https://doi.org/10.4324/9781315111322>
- [4] Caruso, D. R., Mayer, J. D., & Salovey, P.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leadership. In Kravis-de Roulet Leadership Conference, 9th, Apr, 1999, Claremont McKenna Coll, Claremont, CA,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2002.
- [5] Soo-Kyeong, Woo. A Structural analysis on infants sex, age, playfulnes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adaptation to daycare centers.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3, No5, 203-221, 2018.
DOI: <https://doi.org/10.20437/KOAECE23-5-09>
- [6]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e, C., Fabes, R. A., & Liew, J.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Vol76, No5, 1055-1071, 2005.
- [7] Davidov, M., & Grusec, J. E.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Vol77, No1, 44-58, 2006.
- [8] Ren, L., Hu, B. Y., & Song, Z. Child routine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 Chinese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98, 1-9, 2019.
- [9] Hurlock, W. L.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ffectively providing a long overdue remedy for ending state-sponsored genocide (Bosnia-Herzegovina v. Yugoslavia). Am. UJ Int'l L. & Pol'y, 12, 299, 1997.
- [10] Saerom, Park., & Hye Jun, Park.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Trajectory on Affective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 Differences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Korean J Child Stud, Vol37, No5, 33-52, 2016.
DOI: <https://doi.org/10.5723/kjcs.2016.37.5.33>
- [11] Yong Joo, Jo. The study of difference between the maternal empathy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 one responded by mothers themselv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4, 1123-1146, 2010.
- [12] Smith, A.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Vol56 ,No1, 3-21, 2006.
- [13] Davis, M. H.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Routledge, 2018.
DOI: <https://doi.org/10.4324/9780429493898>
- [14] Mi Yeon, Bae., & Soon Bok, Lee. The Effect of Infant-Teacher Relationship on Infants Attachment Security to Their Teachers, and Infants Adjustment in Day Care.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15, No2, 339-360, 2014.
- [15] Min-yeong, Lim., & Kangyi, Lee. The effects of the infant's temperament and the teacher's perception of the infant-teacher relationship on infant's acclimatization in the daycare center.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40, No2, 225-245, 2020.
DOI: <https://doi.org/10.18023/kiece.2020.40.2.009>
- [16] Mehrabian, A., & Epstein, N. A.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Vol40, No4, 523-543, 1972
DOI: <https://doi.org/10.1111/j.1467-6494.1972.tb00078.x>
- [17] Davis, M. 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2-19, 1980.
- [18] Bryant, B.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53, No2, 413-425, 1982.
DOI: <https://doi.org/10.2307/1128984>
- [19] Seonghee, Park. Empathy, empathic understanding. Seoul: Wonmisa, 1994.
- [20] Carey, W. B., & McDevitt, S. C. Stability and changes in individual temperament diagnoses from infancy to early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Vol17, No2, 331-337, 1978.
DOI: [https://doi.org/10.1016/S0002-7138\(10\)60096-9](https://doi.org/10.1016/S0002-7138(10)60096-9)

- [21] Kye Ok, Hong. Relationships between Patterns of Attachment,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Parenting Behavior among Kindergarten Children. Doctoral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1995.
- [22] Ho-in, Kim. Developing a measure for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 toddlers who attend day-care centers. Doctoral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0.
- [23]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M.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8, No1, 33-51, 1993.
DOI: [https://doi.org/10.1016/S0885-2006\(05\)80097-3](https://doi.org/10.1016/S0885-2006(05)80097-3)
- [24] Chong Eun, Oh.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attachment security and early adjustment in day care. Master's thesis, K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1.
- [25] Hu, L. T., Bentler, P. 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6, No.1, pp.1-55, 1999.
DOI: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26] Clark, L. A., Kochanska, G., & Ready, R.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9, No2, 274-285, 200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9.2.274>

김 은 아(Eun-Ah Kim)

[정회원]



- 2021년 8월 : 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문학석사)
- 2017년 4월 ~ 현재 : 자이 숲 어린이집 원장

<관심분야>

영아발달, 교사교육

김 종 훈(Jong-Hoon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철학박사)
- 2016년 9월 ~ 201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연구방법론